



## 노동, 가족, 여성의 시각으로 본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 조주은과 함께

이불출청을 껴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달라 물달라 옷달라 시켰었다(중략)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갠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근로자였었다(후략)

- 박노해, '이불을 껴매면서' 중에서 -

**만**은 사람들에게 노동문제는 사회문제이고 가족 문제는 사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구분이 익숙하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이고 개인의 삶은 그가 속해 있는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삶의 다양한 범위를 또렷이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여성, 노동 그리고 가족이라는 화두 속에서 노동자 가족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조주은(38) 씨의 작업을 눈 여겨 보게 한다.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을 여성과 가족의 시선으로 담아낸 『현대가족 이야기』를 올해 초에 출간한 그와 마주 앉았다.

각기 분리된 주제인 것처럼 취급되는 노동과 가족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시도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궁금했다. “여성학에서는 성, 노동, 가족, 정책으로 크게 연구 분야가 구분됩니다. 그러나 저는 성만의 문제, 노동 시장만의 문제, 가족만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뒤를 이었다.

“노동운동을 하려고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남편과 결혼하여 그곳에서 노동자 가족들과 부대끼며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던 그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위 사회의 ‘억압 구조’나 ‘착취’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서 뒤늦게 청년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졸업 후에 다른 진로를 찾아 떠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청년단체에서 만난 남편이 울산에 내려가서 노동자로서 진보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여 저도 함께 하기로 했지요.”

울산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남편은 주·야간 맞고 대를 했어요. 아침 8시 30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쉼해서

남편이 돌아오면, 저도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밤새 전쟁을 치렀지만 가사노동을 분담하자는 말을 못 꺼내줬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세요.” 평등한 가족의 전형적인 한 요소로 가사노동의 분담을 얘기하지만, 혹시 남편의 단점을 깨울세라 작은애는 들쳐매고 큰애는 유모차에 태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도 평등 못지않게 타인에 대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에 대한 배려 역시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 평등보다 배려

“가사노동의 분담은 가족만의 영역이 아니고 노동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경계를 같이 건드려야만 서로 맞물려 있는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노동자 가족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심화·확대되었다. 그 결과를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의 상황을 담은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나갔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현재 기혼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50%입니다. 그러나 가정 내 부업 등을 고려해 보면 더 많을 거라 판단됩니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2% 수준이라고 하나, 그것은 정규직 여성의 경우입니다. 비정규직 여성은 남성의 20,3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 차별은 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 의한 성별직종 분리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며 그는 말을 보탰다. “남을 돌보는 것은 여자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로 확대되어 나타난 본보기로 간병하는 일을 들 수 있습니다. 99%가 여자인 간병인들은 실제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24시간 일을 해도 5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중요노동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차별로 이어



부천 여성전화회에서 여성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조주은 씨

지고 있는 것이지요.”

### 가족과 노동과 성의 악순환 고리

가족과 노동에 덧붙여서 어떻게 노동과 성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임금 때문에 파트타임은 드물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남성이 조금 높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시간 상황과 비교하여 임금 수준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여성노동자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여성은 하루에 3시간 15분을, 남성은 1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를, 일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을 더 일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족과 노동과 성의 악순환 고리는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율로 이어진다.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낮은 참여, 양적으로 팽창되고는 있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한 보육시설 그리고 높은 사교육비에 이르면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에 수궁이 가기도 합니다.”

1.17이라는 출산율은 비혼여성의 증가에도 힘입고 있다고 한다. 행복해 보이는 기혼여성을 못 봤다는 그들은 소위 ‘화려한 싱글’을 선호한다. 또한 이

혼율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기시켜주고 있다.

부천, 인천, 서울 등지에서 살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들과 인터뷰를 해보기도 한 그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남성들은 영남지역에 비하면 집안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8년 IMF 이후 실업자가 된 남편들이 많았고 이후 벌인 자영업들도 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들의 현재 수입으로는 그때의 빚을 갚고 부인들의 수입으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과 가족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이중고가 더 이상 여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많은 남성들 역시 이런 갈등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환경이 변해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러한 문제들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가족문제를 개인들에게 해결하라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도적·의식적·무의적인 영역에서까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이 남성을 대상으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이 남성사업장 중심으로 생긴다든지, 육아휴직도 남성들이 실제로 쓸 수 있게 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등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하고 남성들도 가사나 자녀 양육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기에서 생기는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면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사회보험과 세제를 통한 혜택뿐만 아니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도 극복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관행과 이에 따른 의식하지 못 할 정도로 내면화된 생활태도라고 지적한다. “어디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여자가 그래봤자’ 등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들 모두의 무의식의 세계에 뚜렷이 새겨져 있는 편견들도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가정에서 남녀평등의 원리와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에 기반 한 더욱 포근한 가정생활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듯 하다.

### 무의식 세계의 편견도 몰아내야

민족이나 계급과 같은 근대의 중요한 이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가려지거나 배제되고 소홀히 되어 왔던 문제들이 요즈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IMF 이후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적 부의 불평등과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에서 파생하는 여



지난 여름 충북 영동에서 있었던 노동자문학캠프에서 강의하고 있는 조주은 씨

러 열악한 노동조건에 무기력하게 드러나 있는 수많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의 폐쇄화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기본 제도인 가족의 해체 현상, 특히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주변화,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 가족의 문제는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키울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

이들 역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가족생활을 향유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존엄한 인격체이다. 게다가 건강한 노동자 가족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건강한 사회적 연대의 기초이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회 발전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고통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 할 정도로 미래가 열려 있지 않은 상태보다도 더 큰 절망이나 저주는 없지 않겠는가! (황정옥)